

“한국팀 후지쓰배 11連覇 내게 맡겨라”

이세돌·이창호·박영훈·조한승 등 4명 준준결승 진출 중국팀 3명·일본팀 1명 오늘부터 베이징서 8강 격돌

“후지쓰배가 한국 대회인가?” 한국이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11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후지쓰배는 일본기원이 주최하고, 8강전은 매해 동양 각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회지만 지난 1998년 이창호 9단의 우승 이후 10년 동안 한국이 우승컵을 독차지했다.

1988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무려 13차례 우승했고, 일본은 6차례밖에 우승을 맛보지 못했다. 중국에게는 겨우 1차례만 우승컵이 허락됐다.

특히 일본은 대회 초반 6연승을 한 뒤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이 주최하지만 한국의 독무대 인 셈이다.

한국의 이세돌, 이창호, 박영훈, 조한승 9단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1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준결승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랭킹 1~3위 기사 모두가 8강에 올라 대회 11연패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8강전에서 한국은 자리 절반을 차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하다.

중국은 창하오, 구리, 류싱 등 3명이 올라와서 역시 한국의 우승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할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유일하게 요다 노리모토가 8강에 올라 자신심을 지켜냈다.

대진 추첨 결과 박영훈 대 창하오, 이세돌 대 구리, 이창호 대 요다 노리모토, 조한승 대 류싱의 대결로 결정됐다.

이세돌은 중국 구리와 또 한 차례 한·중 정상 대결을 펼치게 됐다. 둘 간의 전적은 6승6패(중



〈이세돌 9단〉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조한승 9단〉

국리그 3승3패 포함)로 팽팽하다. 하지만 가장 최근 둔 두 판을 구리가 이겨 결과를 속단하기 힘들다.

국내 2위 이창호는 천적인 일본 요다를 상대로 자신 회복에 나선다. 이창호는 유독 요다에게 약하다. 이창호는 초창기 열세를 많이 따라잡았지만 2006년 다시 2연패를 해 현재 8승 10패로 뒤져 있다.

박영훈(한국 3위)과 창하오(중국 2위)의 격돌도 흥미롭다. 박영훈이 3연승을 달리다 2006년 이후 2패를 당했다. 둘은 올 가을 벌어질 제 13회 LG배 8강전에서도 맞붙어 알꽃은 인연은

연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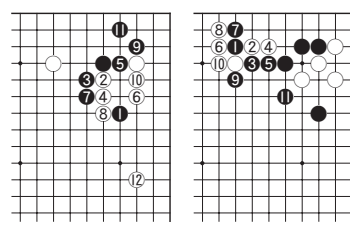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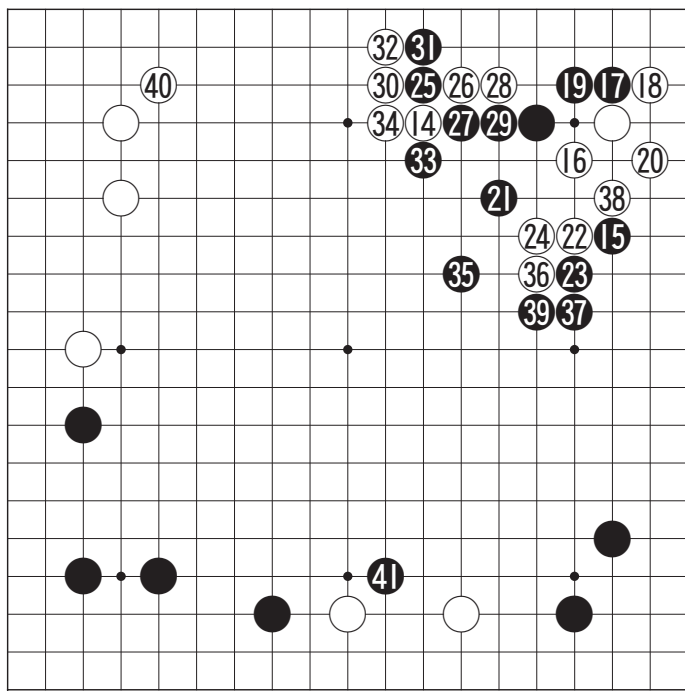
특히 후지쓰배에서는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병역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군미필 기사의 활약 여부가 관심이다. 오는 8월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조한승이 과연 이번 후지쓰배에서 결승까지 오를지가 관전 포인트.

국내 5위인 조한승은 이번 대회서 2승만 추가해 결승에 오르면 병역특례 수혜 대상이 된다. 첫 관전은 중국 랭킹 12위인 류싱이다. 3년 전 TV 속기로 한 차례 격돌, 조한승이 백으로 반집을 이긴 바 있다. 대회 우승 상금은 1500만엔(약 1억5000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필요한 교환
2회 1국 2보 (14~41)

白 김영수 5단 黑 백승열 5단
(전남교사회) (농협)



〈참고도 1〉 〈참고도 2〉

백전노장이다. 당황하지 않고 16으로 확실하게 나가둔 다음 20으로 후구진 것이 침착한 정수였다. 흑은 17, 19로 붙여 당기는 했으나 왼쪽으로 벌릴 데가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백 14가 좋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백승열 5단이 흑 12로 나가두고 25로 붙여간 것이 이같은 고민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흑 21과 백 22를 교환해 둔 것이 또 나쁘다. 흑 21로는 그냥 '참고도 1'의 흑 1로 협공하여 백 12까지가 예상되었는데 백승열 5단은 초반부터 변칙수를 구사하며 김영수 5단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김영수 5단 역시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 산전수전 다 겪은

〈오규환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이세돌 8개월째 한국랭킹 1위

이세돌 9단이 8개월째 정상 자리를 지켰다. 한국기원은 6일 “프로기사 월간랭킹에서 이세돌이 1만5천241점을 획득해 1만3천414점을 얻은 이창호 9단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표참고).

이로써 이세돌은 이창호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지켰던 1위 최장 보유기록에 4개월차로 다가갔다.

지난달 8승2패를 거둔 이세돌과 9승1패를 한 이창호와의 랭킹포인트차는 지난달 2천36점에서 1천827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2위 이창호와 3위 박영훈 9단(1만2천867점)과의 차이도 919점에서 547점으로 바짝 좁혀졌다. 4위와 5위는 지난달과 같이 목진석 9단(1만1천935점), 조한승 9단(1만1천822점)이 차지했다.

원성진 9단(1만1천585점)은 강동윤 7단

순위	기사	점수
1	이세돌	15,241
2	이창호	13,414
3	박영훈	12,867
4	목진석	11,935
5	조한승	11,822
6	원성진	11,585
7	백홍석	11,557
8	강동윤	11,536
9	박정상	11,419
10	한상훈	11,291

을 8위로 밀어내며 6위에 올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역시 쉼돌” 이세돌 TV바둑쇼대회 우승
이세돌 9단(왼쪽)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회 TV 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조한승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 오로 재공〉

이민진 여류명인전 부활

패자전 본선 고주연 꺾어

이민진 5단이 비랑 끝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민진은 지난 3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0기 STX배 여류명인전 패자전 본선 1회전에서 고주연 초단을 상대로 190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민진은 이날 승점을 추가하면서 23승13패가 됐다. 고주연 초단은 최근 4연패 늪에 빠지면서 6승12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여류국수전에서 박지은 9단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민진은 또 다른 여류기전인 여류명인전에서 부활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대회 상금은 우승 1천200만원, 준우승 500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운의 스타’ 하성봉 세계 아마바둑 정복

비운의 스타 하성봉이 세계아마바둑정상에 우뚝 섰다.

하성봉 아마7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이치가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29회 세계 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 최종국에서 홍콩의 찬나이산 아마6단에게 승리해 8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김찬우(20회), 유재성(21

회), 이강욱(25회)에 이어 이 대회 네 번째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세계아마대회에서 우승하면 프로 입단자격을 부여해오던 한국기원이 올해부터 그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하성봉은 프로 입단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진석 첫 승 하이원배 조훈현 꺾어

에타게 1승을 목말라했던 목진석 9단에게 단비가 내렸다.

목진석은 지난 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 리그에서 조훈현 9단을 168수 만에 물리치고 리그 첫 승을 기록했다.

초반 승부는 조훈현의 날카로운 공격이 돋보였으나, 중양을 잘 지켜낸 목진석은 후반 좌변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부를 결정

지었다.

이로써 목진석은 리그 시작부터 3연패를 했지만 이날 승리로 조훈현, 최명훈 9단, 최원용 5단과 리그 공동 7위를 달리게 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60초 초읽기 3회이다. 리그전 1, 2위가 결승 5번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 상금은 1억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력광주광역시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토 되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yutenpharm.co.kr

큐텐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피로회복, 정신·수면·면역·생식기능 향상,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시력, 야맹증
- 발모, 피부병 예방, 갱년기·폐경기·고령자·조산경험자
- 면역기능, 기혈순환 촉진
- 심오활성제 및 천연기원 성분 함유하여 피부·노화·노약자
- 당뇨병, 노년성
아연의 보충
-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작용하여 노화·노약자